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4 겨울 이야기

vol.176

www.holt.or.kr





겨울 이야기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3인이 홀트에 다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낮에는 홀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농구 코트로 나와 운동을 하는 홀트휠체어농구단의 영광스러운 얼굴들을 만나보세요.

-왼쪽부터 이윤주·조승현·최요한 선수(p.28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6호·계간 **발행일** | 2014년 12월 10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दै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실장),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이수연(국내
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박소민
(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 03 Holt Letter
- 04 **입양, 우리 품으로**
그곳에 그집엔 쌍둥이 천사가 산다
- 0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내가 뽀뽀 해줄게요, 하은이의 행복한 하루
- 10 **Love In World**
몽골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 12 **곳곳GoodGood한 엄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멈추지 말고 일어나
- 14 **기획**
실버카페 '마살'로 커피 마시러 갈래?
- 18 **홀트 인터뷰**
캘리그라퍼 강병인, 붓 끝에서 피어난 생명의 힘
- 22 **나눔이웃 나눔기업**
<2013 M.net 보이스 키즈> 우승자 김명주 학생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꿔요~
- 24 **희망 풍경 1**
사랑을 행동으로! 아빠를 본받은 딸의 나눔 이야기
- 26 **희망 풍경 2**
세상을 향해 점프! 미혼모 일터 만들기 'Jump with Baby'
- 28 **희망 풍경 3**
홀트휠체어농구단 출신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3인방
우리나라 휠체어농구의 길을 묻다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 이해경 이사(서울복지재단 이사장) | 임부용 이사(HICS 수석고문)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목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고문)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임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사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뜰·아침뜰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올 한 해 홀트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스산한 바람에 저만치 빠르게 밀려가는 낙엽을 보면서 옷깃을 세우고 종종걸음으로 설 곳을 찾는 영혼들... 성탄의 장식과 함께 울려 퍼지는 요란한 거리의 캐럴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그렇게 또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에 핏줄을 세웠나 싶습니다.

웬지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보다 희망의 2015년을 기대하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홀트로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해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가정의 사랑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입양인 및 입양가족 사후 관리,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보육, 건강 및 다문화, 장학 및 해외복지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대구 본리동에 있는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과 광주에 건물을 구입하고 인천의 복지센터를 신축했으며, 광주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고, 서울 강동구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건물 건축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해외복지지원사업으로는 캄보디아에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조리실을 신축했으며 몽골 결연과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홀트가 창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홀트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복지사업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홀트는 그동안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했으나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기르지 못하고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한 후에 아기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아기를 양육하면서 직업훈련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제공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주택 지원과 양육 지원, 경제적인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준비, 홀트일산복지타운의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복지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홀트를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 홀트 가족과 홀트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탄의 축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그곳에 그집엔 쌍둥이 천사가 산다

하루 블로그 방문객 2만 명에, 8만 5,000명의 든든한 이웃을 가진데다, 누적 방문 수 1,100만에 육박하는 네이버 '인테리어 가구 부문' 파워 블로거 땅굴마님, 이혜선(43) 씨. 블로그 '그곳에 그집'을 통해 살림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뛰어난 솜씨를 선보여 인기를 누리고 있고, 벌써 책도 4권을 낸 저자이면서, 스타 살림꾼 강사이기도 하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블로그에 "저... 엄마 됐어요"라는 고백을 했고, 댓글이 7,000개나 달렸다. 도대체 '그집'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쌍둥이 아기 천사들과의 운명적 만남

마치 사진 스튜디오에 온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남양주에서 꽤 유명한 '그집'. 감탄이 절로 나는 그 예쁜 집에서 땅굴마님 이혜선 씨와 남편 양승봉(43) 씨를 만났다. 카페처럼 분위기 좋은 주방 식탁에 앉아 핸드드립 커피를 함께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린이집 수업을 마친 쌍둥이 은호·은채(21개월)가 종종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연신 용알거리며 함께 책을 보고 인형들을 가지고 노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모습에 절로 웃음이 터진다. 아이들이 채우는 작은 온기로 집은 조금 어질러지더라도 행복감은 배가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집에 어떻게 쌍둥이 아기 천사들이 오게 됐을까? 부부는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2013년 6월, 서울에 들러 칼국수를 먹다가, 둘 중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 오는 상담받을까?!" 아기가 생겨도 입양은 꼭 하자던 약속이 아이 없이 지내기를 수년이 지나서, 입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미 바뀐 뒤였다.

3년 동안을 신중하게 생각한 끝 무렵이라 '행동력' 하나 확실한 부부는 칼국수를 먹고 난 그 길로 즉시! 상담을 받으러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았다. 부부는 입양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만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의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을 찾자' 싶었기에, 믿을 만하고 안심할 만한 홀트로 가게된 것이라고 한다. 저



넉 퇴근 시간 다 돼서 찾아간 홀트에서 은호·은채 '쌍둥이를 입양할 생각 없냐?'는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다. 사실 지인들 사이에 쌍둥이 아이들이 많았고, 하나같이 예뻐 쌍둥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부디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도 간절했다. 선생님이 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내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좀 늦었더라면 다른 가정에 입양될 수도 있었던 아이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품에 안긴 내 아이들을 보며, 그때 칼국수를 먹으면서 한 말을 바로 행동이 옮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헤아려보면, 가슴이 쿵... 하겠지만, 진짜 '인연'이었던가 보다 싶기도 하다고 한다.



1 스튜디오에 온 듯 깔끔한 쌍둥이 천사네 거실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의 알콩달콩한 육아 이야기

큰 무리 없이 입양 절차를 지났고, 생후 7개월에 접어들던 때... 아기천사들이 집으로 오는 감격스러운 날이 왔다. 늘 각 맞춰져 있던 그집... 그 날 이후 아이들과 별이는 작은 사랑의 소묘로 집은 늘 치워도 금세 어질러지는데... 과연 그녀는 괜찮을까? 머리에 꽃 단 것처럼 정신없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림만능꾼인 엄마는 쌍둥이를 부지런히 해먹이고 집을 가꾸고, 밭도 매고, 캠핑도 가고, 과일도 따러 가는 등 누구 못지않게 재미지게 산다.

한 명도 버거운데, 둘을 어찌 한 번에 키울까? 사실 은호는 처음부터 아빠를 잘 따랐고, 은채는 엄마와 각별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분담이 잘 되어 있던 것. 아빠가 보는 은호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빠르고 집중력이 남다른 아이인데, 또 아빠를 닮았는지 책을 좋아해 족히 2~3분은 집중하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엄마가 보는 은채는 샘도 많고 눈치가 빨라서 말귀를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것 같다. 은채 역시 늘 에너지가 넘치는 엄마를 닮았는지 몸으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데, 은호를 지극히 챙기고 돌보기도 하고, 엄마가 화장을 하면 옆에서 따라 해보는 등 다분히 여자아이답게 굴어서 부부에게 항상 웃음을 전해준다고 한다.

2엄마가 "뽀뽀!"라고 하자 얼른 코를 갖다 대는 애교쟁이 은채.



3



3 책을 한번 펼치면 집중을 잘하는 은호. 엄마, 아빠와 함께 책 읽는 쌍둥이.

4



4 자지만 한 아기 인형에게 젖병을 내밀면서 엄마, 아빠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

블로그에 공개입양을 밝히고… 7,000개의 댓글 속에 담긴 응원

엄마가 워낙 유명한 파워블로거인 만큼 입양 사실을 공개할 때 반응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7,000개나 넘는 댓글이 달릴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고 지금까지 댓글이 계속 달릴 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냈다'고 격려해줬다. 그러면서 의외로 입양을 생각하는 가족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불특정 다수에 입양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속시원한 측면도 있었다. '국민 조카'라 불릴 만큼 전국의 이모·삼촌들에게 은호·은체가 듬뿍 사랑받고 있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리라 믿는다.

입양 후, 건축가였던 아빠가 건축 관련 개인사업을 시작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육아도 부부가 분담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됐다고 한다.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니,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주도로 가서 살거나 외국에 가서 사는

건 어떻게? 하며 부부는 또 다른 미래를 두근거리며 궁리하고 있다.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게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부부... 참 보기 좋고 부러울 따름이다.

사람을 살리는 살림꾼 부부와 쌍둥이 천사가 사는 그집

부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공부를 못하고 덜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일찍 찾아내서 그 직업 또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살림과 인테리어 등에서 재미와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엄마와 집을 짓고 그 속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 아빠처럼, 그리고 분명 아이들이 자아를 찾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왜 나는 입양됐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미리 입양사실을 잘 알려줄 것이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이를 더욱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블로그에서도 입양 사실을 당당히 밝혔던 것이리라. 하지만 아이들이 혹시나 자라면서 이러한 일로 상처를 겪더라도 잘 이겨내리라 믿고, 사람과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꿈을 키우고 자라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실 부부는 평소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고,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라나는 쌍둥이가 이런 부부의 선한 영향을 잘 받고 자랄 수 있을 거라 여긴다.

쌍둥이 키우면서 살림도 멋들어지게 잘하는 이 발랄한 부부가 쌍둥이와 함께 세상에 전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그곳에 그집엔 '쌍둥이 천사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살림꾼 부부'가 산다고 답할 것이다. #HIT

글 _ 광소민·홍보팀



5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은 사랑을 더 듬뿍 받고 있다.



6 다정하게 나란히 의자에 앉아 노는 은채·은호.

내가 뽀뽀 해줄게요, 하은이의 행복한 하루

보는 사람마다, 예쁜 인형마다 뽀뽀하는 밝고 활달한 하은이(가명, 21개월). 선천성 구순열과 심장에 구멍이 나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병을 안고 있었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아이. 하지만 언제 아팠다는 듯 건강하게 뛰어놀면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하은이를 보고 있노라면, 아팠던 과거를 잊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미래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언제 아팠는지도 모를 만큼 활달한 하은이

하은이를 만나기로 한 초겨울 어느 날. 홀트병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린 인형 목을 껴안고 천진하게 놀고 있는 한 여자 아이가 제일 처음 눈에 들어왔다. 구순열 장애와 심장 수술을 2달 전 받았다는 아이가 그렇게 해맑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은이는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선천성 구순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6개월 후 한 차례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은 후 많이 나아졌다. 그렇게 심한 구순열은 아니었지만 갈라진 윗입술과 변형된 코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형물을 이용하고 위턱모가 꾸준히 관리를 해준 덕에 지금은 입

과 코가 예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홀트병원으로 또래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들어오자 먼저 다가가 아이는 체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블록을 슬며시 건네던 하은이. 워낙 붙임성이 좋아, 하은이의 마음에 든 사람들은 뽀뽀 세례도 받을 수가 있다. 강아지 인형을 한참 가지고 놀다가도 일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뽀뽀를 하고 활짝 웃는 하은이를 보고 있노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은이의 사랑에 전염되는 것 같다.

자기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놀던 분홍색 책상에서도 선뜻 비켜나 친구를 앉을 수 있게 해주는 아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지나가던 어른들도 저절로 머리를 쓰다듬어주게 된다.

구순열 수술에 이은, 심장수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지만 2013년 8월, 하은이에게 동맥관 개존증으로 인해서 심장에 2mm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태아에게는 태아의 기관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이것이 출생 직후에 닫혀야 한다. 동맥관 개존증은 출생 후에도 동맥관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 없다. 일부 유전적 질환이나 임신 초기 풍진에 감염될 시, 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가벼운 경우에는 외적으로 거의 무증상이어서, 심장에 잡음이 청취되어 이를 발견하기도 한다. 동맥관 개존이 클 경우, 영아기부터 심부전과 성장 지연을 동반할 수 있다. 만약 아기의 심장을 초음파로 진찰할 때 넓은 맥박이 나타나고 맥박이 도약하듯이 뛰는 것 등이 관찰되면 이 병을 의심해볼 수가 있다고 한다.

2014년 3월 14일에는 하은이의 심장 구멍이 다행히 1.5mm로 줄어들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경과를 지켜보기도 했었다. 사실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다.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구멍이 3.5mm로 커져서 결국 심장의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받기도 해 고생을 많이 했다.

판사봉을 친 하은이를 그려보며...

하은이는 외형적 장애뿐 아니라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등 적잖은 병치레를 했던 약한 아이였다. 긴 빗금처럼 남은 입 위의 구순열 상처와 구강내부 등과 코 부분들에 성형외과적 수술이 남아 있고, 9살~10살 정도가 되는 시기에 몇 차례 수술을 더 해야 얼굴이 예쁘게 자리 잡는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은이를 11개월부터 키운 위탁모 노정미(43) 씨는 하은이가 그렇게 심한 구순열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수술 전 사진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 아이를 '이전에 키웠던 아이



1 구순열 수술을 받기 전 하은이. 2 수술 후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모습.

들처럼 똑같은 애정을 주면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런 건 안 보이더라'며 오히려 애교가 많고 밝은 하은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단지 아이가 커서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위탁엄마의 걱정이다.

홀트에서 아이 키우는 일을 6년 동안이나 했고, 남자아이만 키우다 처음으로 맡은 여자아이 하은이. 하지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키우는 아기가 될 거라고... 엄마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처음엔 애를 태웠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지난 2월 홀트에서 하은이의 돌잔치를 할 때 하은이가 판사봉을 잡아 위탁가족들은 훌륭한 판·검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좋아했었다. 아팠던 일들은 다 잊고 우리 하은이가 판사, 아니 그 이상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미래를 기도해보며 아기담요를 덮고 엄마 등에서 잠드는 하은이 이마에 아쉬운 뽀뽀 인사를 남겨주었다. **HOIT**

글 _ 곽소민·홍보팀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수혁, 준이, 건우는

인지발달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던 세 개구쟁이들은 그 사이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몽골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수도 울란바토르시에는 유목생활을 접고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 차, 도시는 이미 과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민민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몽골.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성긴헤르흐구의 게르 밀집촌에는
아동들이 전기도, 물도,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대역섯 평 정도
되는 게르에서 일곱 혹은 여덟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영하 50℃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몽골의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날개를 달아주려 함께 갈까요?

홀트드림센터의 두 번째 기도, 몽골

2011년 4월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가 문을 열고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예쁘게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우리회는 두 번째 사업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을 아동들을 찾던 중 우리네 모습과 많이 닮았고, 형제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한 몽골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고, 지난 2월 울란바토르시 성긴헤르흐구의 게르 밀집촌 빈곤가정 아동 20여 명의 결연사업을 시작으로 4월에 바양주르후구 남양주문화관 3층 한켠에 몽골홀트드림센터를 열어 40여 명의 꿈나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센터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열린 현판식에 김대열 회장님과 설태호, 김경희 이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계단 뒤에 사는 아이들

센터에 등록된 아동 대부분은 편부, 편모, 조부모 가정 아동들로 아파트 계단 뒤 1~2평 남짓한 공간에 살거나 게르에서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 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 1 계단 뒤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몽골의 조손가정을 방문한 김대열 회장·설태호 이사·김경희 이사.
- 2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옷.
- 3 몽골의 빈민가. 얼기설기 엮은 집은 영하 50°C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에 어렵다.

있나구요?” 네. 저도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계단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어서도 허리를 펼 수 없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렵게 방문한 한 가정은 집을 나간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홀로 네 명의 손자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소와 경비를 하시며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손자 넷을 기르기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낯선 나라에서 온 손님들까지 맞이하셨으니 할머니는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땀겨나 흘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는데도 이 집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막내와 바로 위 누나가 집안에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일을 나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 다칠까 걱정이 된 할머니의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하지만 밖에서 잠겨 있던 자물쇠를 본 순간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몸을 하면서도 정신은 온통 집에 두고 온 손자들 생각에 애가 타들어갔겠지요.

몽골홀트드림센터, 사랑의 씨앗 심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몽골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래야 20~30분씩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데다가 교실 부족으로 3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터라 때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때로는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로 학교를 빼먹기 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들은 교육의 중요함보다는 끼니 걱정만으로도 벅차, 학교는 사치라고 말합니다.

몽골홀트드림센터는 이런 결손 가정 아동들의 빈부격차, 생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아동들을 돌봅니다. 점심 한 끼, 방과후 수업 몇 시간으로 아이들

이 가진 마음의 허기를 다 채우기는 부족하겠지만, 이 작은 사랑의 씨앗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하 50°C의 겨울 몽골에 따뜻한 사랑을…

몽골은 겨울이 길어 난방이 곧 생존이라 석탄이나 나무를 살 수 없을 때, 주변의 소똥을 구해 잘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몸만큼 큰 물통을 들고 10여 분을 걸어와 물을 사는데 이 물로는 빨래나 목욕은 상상할 수 없고, 생존에 필요한 식수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겨우내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영하 50°C에 가까운 추위와 맞서 겨울을 이겨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크다는 말 다들 기억하시지요? 이미 많은 후원자님께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고 결연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결연 후원자님이 한 분씩 늘어갈 때마다 게르촌을 찾는 직원들의 걸음은 바빠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방문을 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에는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의 따뜻한 뒷신이 썩어져 있으니까요.

아직도 성긴헤르혼 게르밀집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미래의 몽골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지만 기온은 벌써 영하 5°C에 달하는 몽골홀트드림센터에는 방한복, 학용품과 결연 후원자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움츠린 몽골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립니다. **ᠬᠡᠳᠡ**

글 _ 이은정 팀장·해외사업팀

해외빈곤지역 후원 및 결연문의 02-331-7088



즐겁게 춤을 추다가... 멈추지 말고 일어나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노래를 부르는 다은(가명, 23) 씨.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이들의 울음은 이내 그치지만, 다은 씨와 아이들의 생활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는다. 아이의 병원비로 빚을 저 월세집에서 떠나야 하는 12월 한겨울. 다은 씨는 어떻게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나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고 싶은 당찬 엄마. 다은 씨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이 겨울, 찾을 수 있을까...?

- 1 엄마가 부르는 노래에 해맑게 웃는 현지와 현주.
- 2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는 다은 씨.

옷이 없어 한두 벌로 빨아 입고 외출 안 하기도...

의정부에서도 한참을 더 찾아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일란성 쌍둥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다은 씨의 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적잖게 놀랐다. 집안 가득 정리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 짐들... 그때 거실 한켠에서 놀던 아이들도 낯선 이의 방문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색색깔의 예쁜 한복 선물도 가져왔건만, 화려한 옷을 꺼내 보여도 좀체 달래지지 않는다. “아이들 옷이 없어서 한두 벌로 계속 빨아 입히는데 그것마저도 닳고 헤져버려서 외출을 거의 안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곤 있지만, 신발도 한 켤레, 점퍼도 하나로 버틴다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뭐든 두 배가 들어가는 살림이라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는 두 아이를 안아 능숙하고 참을성 있게 다독이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엄마.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엿한 엄마가 다 된 다은 씨 품에 안겨 찻때 현지(20개월)는 이내 폭 잠들었다. 현지와 쌍둥이라는 게 안 믿길 만큼 작고 여러 보이는 현주는 엄마 무릎에 앉아 아토피가 번진 팔 등을 계속 긁고 있어 안쓰럽다.



1



2

“밀린 월세 때문에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2년 계약이 다 끝나가는 12월. 보증금도 없는데, 다른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나가 살 집을 알아봐야 한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다. 습기가 많은 집이라 방 하나는 아예 곰팡이가 가득 퍼서 문을 밖에서 잠근 상태다.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납이 되지 못한 짐들은 모두 집 곳곳에 쌓여 위태롭다. 아이들과 엄마는 좁다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잠을 청한다. 밤이 되면 옷풍이 세서 아이들은 금세 감기에 걸리곤 하는 집. 하지만 이 집마저도 막상 나가려니 눈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월세가 밀리고, 집도 치우고 살지 못할 정도로 엄마를 힘들게 했던 건 뭘까? 쌍둥이 딸 현지·현주는 35주를 못 채우고 태어났다.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이 있던 36일 동안 들었던 병원비는 일주일에 100만 원. 특히 현지가 태중에 있을 때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현주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현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소변을 보지 못해 이노제를 써야 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었다. 현주는 그 후로도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출생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을 오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MRI상으로 좌·우뇌의 크기가 달라 엄마의 가슴을 또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현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 병원비로 인해 빚은 더 늘어나서, 저녁에

운송일은 하고 있지만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오빠, 큰 수술도 겪고 아직 아픈 몸인데도 식당을 나가시는 엄마에게 죄송스럽지만 계속 신세를 지었다.

아이 아빠도 친아빠도 외면... 빚더미에 앉은 집

아이들 아빠는 친구의 오빠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컸던 다른 씨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손가정에서 자라 아픈 가정사를 가진 둘은 서로 좋아하고 사귀게 됐다.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둘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됐고, 다른 씨가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임신 검사비를 부담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탓에 받은 상처로 자신만은 아기들에게 같은 환경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지우라는 요구까지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데려가서 친척이 키우게 하겠다고 말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낳길 감행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집에서 배가 불러올 때는 한 없이 서러웠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다. 재혼해서 따로 사는 다른 씨의 아버지는 딸에게 실망한 나머지 모진 말을 하고, 연락을 끊은 뒤 경제적인 지원도 일체 안 해주셨다. 엄마와 오빠가 힘겹게 다른 씨와 아기들을 위해 빚을 져가며 뒷바라지를 했지만 남은 건 빚덩어리. 이걸 앞으로 갚아갈 방도도 여의치 않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다부진 어린 엄마다.

“사실 다 못 마친 학업이 아쉬워요”

어려운 환경에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중졸인 학력. 공부에 대한 미련이 몹시 크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만학도를 위한 2년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남은 시간에는 미용 일을 배워 돈을 벌고 싶다는 다른 씨의 눈이 한순간 빛났다. 그래서 요즘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12월에 개강할 미용수업도 기다리고 있다고. 내년 3월이면 학업도 시작할 수 있을까? 희망을 품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주위에서 ‘애 둘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는 말도 듣는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고 싶은 다른 씨.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깨끗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다른 씨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추운 겨울 그녀가 가족이 어떻게 겨울을 날지...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가 춥을 추듯 이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날을 꼭 만들리라 믿고, 이 겨울 따뜻한 손길들이 그녀의 집까지 뻗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글 _ 꺾소민 · 홍보림



‘갯갯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갯갯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목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갯갯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목들이 더욱 갯갯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실버카페 '마실'로 커피 마시러 갈래?



홀트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중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실버커피뱅크에서는 새로 출발하는 노년의 '취업'에 대한 열기가 한창 뜨겁다. 이미 하남시의 명물이 돼가고 있는 실버카페 '마실'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복지의 오늘을 돌아보며, 홀트에서 펼치는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이미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로 늘어나서 말 그대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노인을 더 이상 '모시고 사는' 부양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ex. 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 확대 속도와 파급력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연간 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 실시 첫 해 전국적으로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했는데, 매해 계획된 사업량을 초과 달성해 2013년에 이르러서는 25만 5,522개, 2014년에는 연간 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 공헌형 일자리와 시장 진입형 일자리가 있다. 사회 공헌형 일자리는 예산 내에서 참여노인의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장 진입형은 기업 등 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는 부대 경비만 지원하는 형태다.

이 모든 일자리의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어르신(교육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3등급)는 복지 혜택의 중복을 막기 위해 참여가 제한되니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대부분 9개월에서 12개월(연중 일자리)이며 매년 1월경에는 대부분의 지역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를 신규 선발하기에 평소에 관심 있게 찾아보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기간에 맞춰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노인을 더 이상 '모시고 사는'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회적 활동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

실버카페 '마실' 사업단은?

하남실버인력뱅크에서는 여러 일자리 유형 중 2014년 현재 사회 공헌형일자리 260명과 시장 진입형 중 인력파견형 일자리 31명에 대해서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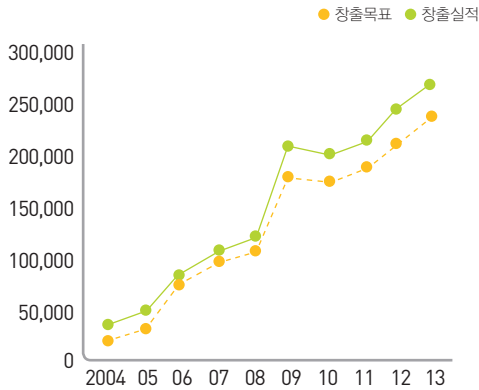
거기에 더해 올해 8월에는 시장 진입형 중 제조 판매형 사업에 해당하는 실버카페 '마실 사업단'을 출범해 10명의 어르신들이 실버 바리스타로서 맹활약 중이다.

사실 시장 진입형 일자리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월 36시간 / 주 3회×3시간씩)에 비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일한 만큼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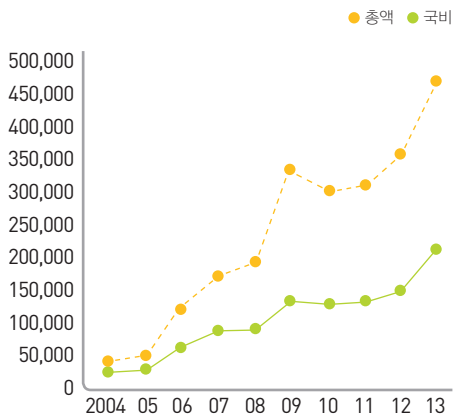
들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있다. 또한 기술 습득으로 재참여가 가능해 이는 결국 참여 어르신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만으로는 초기 투자비용,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단 개설이 쉽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경정사업본부로부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별도의 후원금 2,000만 원을 기부받아 하남시 최초의 시장형 사업단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연도별) (단위: 개)



노인일자리사업 재정투입 추이(연도별) (단위: 백만 원)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3

어르신이 만드는 커피 No! 진짜 맛있는 커피집!

참여 어르신 10명은 카페 개소를 앞두고 전문가로부터 두 달간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꿈꿨다. 그 결과 실버 바리스타로서 카페의 운영뿐 아니라 외부 취업으로까지 연계를 목표로 은퇴 이후 진정한 의미의 '재취업'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수익금 전부가 본인들의 인건비와 재료비로만 사용되다 보니 참여 어르신들에게 강한 동기부여 요소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며, 복지관 1층에 설치되어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아 다른 일반 카페에 비해 좋은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을 바탕으로 출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지역 사회와 언론들에 조명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명의 실버바리스타.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정지현(73,남) 어르신은 뭇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에 만족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된 일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주변 친구들이 처음엔 “자네가 무슨 바리스타 일을 하는가? 자네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라고 했지만 카페에 초대돼서 어르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만들어낸 커피를 맛보더니 그제서야 “정말 멋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자네가 증명했네. 보는 내가 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집에 있는 손자들에게도 “할아버지 멋쟁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어 어딜 가나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하단다.

이렇게 지역 어르신 생활의 활력소가 된 마실! 첫인상은 우리집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푸근하고 다정하지만, 한 번 맛본 뒤에는 어느 커피전문점을 능가하는 '진짜 맛있는 커피집'으로 기억되고 진한 커피의 향기로 두 번 기억되는 곳이다. 하남시를 넘어서 보다 멀리 어르신들의 멋진 도약들에 대한 소식을 들길 바라며, 오늘도 열 명의 실버바리스타 어르신들은 커피에 향기로운 행복을 뽑아내고 있다. **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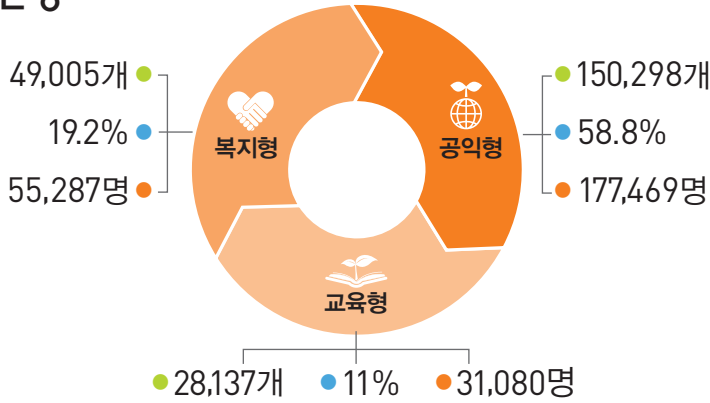
글 _ 임병일 실버인력뱅크팀장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노인 일자리 실적

● 실적 ●퍼센트 ●참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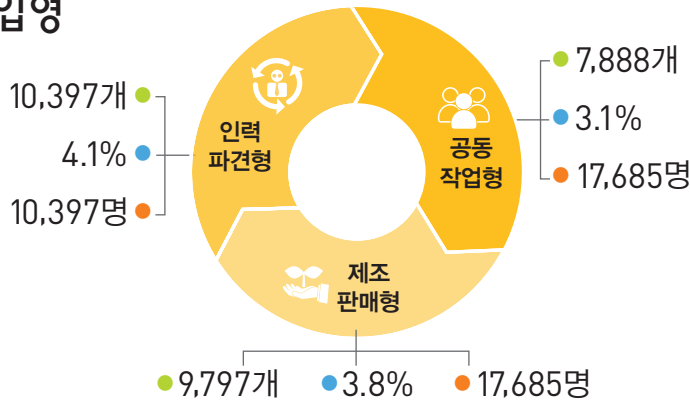
사회 공헌형



총 실적
255,522개

총 퍼센트
100%

시장 진입형



총 참여자수
291,918명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홀트에서 펼치는 노인복지 서비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비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고,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www.holtdaegu.or.kr /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노인일자리사업 - 복지형·공익형)

지역환경 개선활동, 지하철 이용안내 및 질서계도 등

www.woon-bong.or.kr /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실버인력뱅크)

어르신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통해 박물관 해설사, 도서관 도우미, 실버기자단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소득창출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해

바리스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노노돌봄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www.holthanam.or.kr / 031)790-2962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정서지원·일상생활지원)

생신잔치, 야외 나들이 등의 정서지원과 목욕, 미·이용, 세탁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

www.holtsy.or.kr /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건강증진실 운영·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어르신 건강증진실 운영과 본누리 어르신학교를 통해 기체조, 라인댄스, 우쿨렐레 등의 교육지원.

www.bolli.or.kr / 053)563-1007

캘리그래퍼 강병인 붓 끝에서 피어난 생명의 힘

국내 제1세대 캘리그래퍼 강병인. 그의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글씨는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춤도 된다. 글자가 내포한 의미나 감흥을 조형화하되 한글의 미적인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때문. 그래서일까? 그의 글씨를 보고 있으면 살아 있는 무언가와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한다.



홀트의 향기를 글씨에 새겨 넣다

〈사랑을 행동으로〉, 〈영혼의 소리로〉, 〈꼭꼭한 엄마〉 등 생동하는 글씨체로 홀트의 홍보를 돕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캘리그래퍼 강병인 씨.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와중에도 홀트의 창이라면 선뜻 힘을 보태 주는 듬직한 벗이다.

“홀트와는 지난 2010년 초췌? 인연을 가지게 되었죠(웃음). 현재로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작품의뢰 비용을 문의해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비영리단체 등 상업성과 상관없는 기관에는 대가 없이 글씨를 써주자, 라는 나름의 철칙을 갖고 있는 터라 재능기부 차원에서 소소한 정성을 실어드리는 것뿐이죠.”

애긴 그리 해도 강병인 씨가 홀트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비단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국외입양장애인모국연수단(Happy Together) 및 국외입양인과 동반자를 위한 모국연수단(Happy Journey) 등을 통해 만난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체험’ 기회까지 제공하는 까닭이다. 서예를 비롯해 한국화 그리기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한글체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게 외려 많습니다. 함께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 서예가로서 보람도 느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나아가 익히려 애쓰는 양부모,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인 입양인과 만날 때면 남다른 사명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시각장애입양인 또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했다. 눈앞이 캄캄할 텐데도 붓을 잡고 앉아 강병인 씨가 샘플로 써놓은 글자를 촉감으로 익히며 자기 이름 석 자를 쓰는 데 끊임없이 몰두하는 모습이 대단히 숭고해 보였다.

“20대~3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죠. 처음엔 자신이 없어서 참석을 망설였다 고백하며 준비된 도구를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해서 제가 먼저 눈을 감고 시도에 나섰죠(미소).”

당사자야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주변의 반응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용기를 얻었고 놀랍게도 강병인 씨가 예시로 써서 건넨 글자체를 무척이나 비슷하게 재현해내었다. 강병인 씨는 다시 한번 목도했다. 쓰는 이의 혼이 실린 글씨는 달필이건 졸필이건 가슴을 울리곤 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아도 한글을 통해 모국의 얼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그의 열망이 글자 획 하나하나 사이로 살아 숨 쉬는 듯했다.

글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다

‘캘리그래피’ 명칭을 국내로 들여온 제1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강병인 씨. 도대체 어떻게 글씨체를 예술화할 생각을 했을까?

“1990년대 초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서점, 백화점, 레스토랑 등 거리



그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연습의 흔적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사랑을
행동으로

Good Good
꼭꼭한
엄마



1, 2 서체지만 조심조심 붓을 놀리는 모국방문단.

의 수많은 간판이 붓글씨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봤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붓글씨의 상업성도 무궁무진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후 강병인 씨는 한글의 서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서체가 다양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어찌 궁서체나 판본체가 다인 걸까, 또 왜 구도는 하나같이 반듯하고 정갈해야 하는 걸까, 싫어당 시로선 과격이라 할 만한 도전에 나섰다. 요컨대, 추사(秋史)의 정신을 기조로 글꼴에 자유를 접목시킨 것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 서체는 글귀마다 내용마다 다르잖습니까. 바로 그것이다, 싶었죠. 그리하여 용도별로 글꼴을 다르게 취해 보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단어 뜻에 따라 글꼴을 비틀어보기도, 책 혹은 드라마 타이틀 경우엔 스토리를 철저하게 분석해 표현하기도 했죠. 서체만 보아도 상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도록.”

강병인식 서체를 향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특정한 무엇의 이미지가 글씨체로 표출되어 대중의 뇌리에 단단히 파리를 튼 것. 국민소주 ‘참이슬’, 전통소주 ‘화요’, 화장품 ‘다나한’, 드라마 <엄마가 뽀났다>, <내 남자의 여자>, <정도전>, <대왕세종> 자기계발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등 그의 글씨는 분야를 불문하고 인기를 누렸다.

“개인적으로 <행복한 이기주의자> 같은 경우, 굉장히 뿌듯한 작업이었죠. 제목을 달리해 재출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니까요. ‘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엔 한문의 글꼴을 갖고 나온 제품인데 소비자가 읽지를 못하니 의미가 없었죠. 해서 제가 한글로 글꼴을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후에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와 같은 성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전적으로 글씨체라 할 순 없겠지만, 업계가 ‘글씨체도 한몫 했다’ 평가해주시니 저로서도 자부심이 듭니다.”

사람, 자연, 그 사이 다리를 놓다!

글씨체란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강병인 씨. 하여 그는 책을 끼고 산다. 책이란 인생에 주어진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영글면 영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단다.

“글씨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사용처를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경험의 세계가 좁으면 창의적으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예컨대 식품은 먹어봐야, 의류는 입어봐야, 서적이거나 드라마는 스토리를 파악해야, 느낌 있는 글꼴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제가 최근 작업해드린 ‘홀트 60주년’ 로고 보셨습니까? 해당 작품도 평소 홀트에 대한 저의 생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숫자 '60' 안에 그의 빛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을 담아서 홀트의 이미지를 포근하게 풀어냈다. 홀트기념관 글꼴을 구상할 적에도 말리 홀트 여사 관련 자료를 꼼꼼히 찾아 읽고 그에 따른 감상을 반영해 작업했다는데.

“한글창제원리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땅·인간 등 만물이 배어 있는 글꼴을 만들되 한문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신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에도 충실하고자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살 소년이 서예에 매료돼 스스로를 영묵(永墨)이라 칭하고 영원히 먹에 빠져 살리라 다짐한 지도 벌써 수십 년째. 서예 교육한 번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는 소년이 자라서 세상에 내놓은 글씨는 많은 이의 찬사를 받으며 한글만의 신비로운 풍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글



3, 4 모국방문단에게 서예 강습 중인 강병인 씨.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서예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얼'이기에 그 만족감이 더 크다.

영묵의
얼





〈2013 M.net 보이스 키즈〉 우승자 김명주 학생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꿔요~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 〈M.net 보이스 키즈〉 작년 우승자 김명주 학생이 상금 중 300만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해와 커다란 화제다.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을 열일곱 살 소녀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걸까? 김명주 학생의 조금은 특별한, 그래서 따뜻한 사연을 들어 보자.



1 연습 중인 김명주 학생.

2 무대 위의 그녀는 지금보다 조금 옛된 모습이다.

소소한 관심이 커다란 기쁨을 만들어

오후 4시, 김명주 양이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선다. 친구와 어울려 신나게 수다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10대다. 낙엽이 구르는 모양만 보아도 옷음이 저절로 난다는 17살. 그렇다고 무작정 가볍게만 여기면 오산이다.

〈M.net 보이스 키즈〉 우승 상금 가운데 자그마치 300만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할 정도로 속이 깊은 소녀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니 것처럼 거금을 내놓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프로그램 출연 전에 이미 결심한 바였죠. ‘만약 내가 1등을 하게 되면 상금은 좋은 일에 써야지’ 하고, 솔직히



전액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한테 빛이 조금 있어... 하하, 그것 갖고 남은 돈을 전해드린 거예요.”

평소 한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에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필히 돕고 싶었다고. 이와 같은 배경엔 명주 양이 자라온 환경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명주 양도 엄마가 홀로 키운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제가 7살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한번은 TV에서 조부모 가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순간 남의 일이 아니다 싶었죠. 엄마와 둘이 살며 어린 맘에 나도 언젠든 텔레비전 속 아이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 불안해했던 듯해요.”

물론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아빠의 부재가 어린 명주 양을 종종 그와 같은 공포 속으로 몰고 가곤 했다. 그때부터였다. 명주 양이, 홀로 있는 아이나 쓸쓸해 보이는 노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나의 노래를 듣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특히, 리어카를 끌고 폐지 수집하러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무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저리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며..., 혹시 어린 손자를 키우고 있어서 저토록 부지런히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이후로 힘겹게 일하는 노인만 발견하면 차비라도 털어서 생수나 음료를 사다가 드리고 온다는 명주 양. 엄마는 그와 같은 명주 양의 마음가짐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속상할 때도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곱게 키운 외동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타인의 형편을 염려하느라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곤 하는 탓이다. 그러나 명주 양의 생각은 다르다.

“그 돈 없어도 저는 집에 가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잖아요(웃음). 하지만 기력이 쇠하신 노인은 다르죠. 집에 있는 손자의 과자를 사 가려고 목말라도 참으시는 그분들께 누군가가 마실 거라도 하나 사다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로 인해 다른 이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명주 양. 여고생의 발언이라곤 믿기지가 않으리만치 속이 짹짹 영글어 가슴이 찡하다. 유명 TV 프로그램 스타로 등극한 이후 각종 지역 행사 등 섭외요청 또한 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놀라운 대목은 그로 인해 주어진 개런티도 홀트에 꾸준히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다. 9월 27일에는 홀트에서 요보호아동 양육지원금을 위해 마련한 나눔이 있는 플리마켓 ‘나플나플’에서 노래를 불러 재능기부를 했다.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 아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도울 거예요. 홀트아동복지회 현장봉사에 필요하면 부르세요. 아셨죠? 금전적인 나눔이나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봉사에도 동참하고 싶거든요(미소).”

올해 10월 17일 두 번째 싱글앨범 〈Finally Good-Bye〉를 내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명주 양은 노래하며 얻는 행복을 자신의 음악을 듣고 무대를 보는 모든 이가 느끼기를 바란다.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노래하고픈 소녀의 진심을 응원한다. **한나**

글_ 이소영

“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도울 거예요.

”



사랑을 행동으로!

아빠를 본받은 딸의 나눔 이야기



“

분명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임을 믿기에,
아기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이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가족 되기

송지원(28) 후원자는 4년 전,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실현해서 첫 직장에 취직이 되고, 사회에 나오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나눔을 실천했다. 홀트의 후원가족이 된 이유는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있었다. 바로 부모님이 후원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부모님께 들어왔던 이름 홀트. 그 이름을 신뢰하고 있었고, '나도 계속 이곳에서 나눔을 이어서 실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홀트의 문을 두드렸다. 후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탈락 승무원으로 취직이 되어 이쉽게 자원봉사는 하지 못했지만 후원으로 꾸준히 사랑을 전했다.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태어나고 자라지만 마음까지 닮아가긴 쉽지가 않은데, 송지원 후원자님께 부모님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자못 궁금해졌다.

베짱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가르쳐주신 부모님

후원자님의 아버지인 송문영(60) 후원자는 2009년에 홀트 후원가족이 되었다. 홀트에 고액을 후원하시던 분이러 홀트에서도 이미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인 송

지원 씨가 그 뒤를 이어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 부녀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후원자에게 들은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로서, 사실 처음부터 남보다 많이 가진 조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업을 하시며 홀로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틈틈이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는 송지원 후원자님.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남몰래 흘렸을 땀과 눈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딸로서 조금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고 싶었으리라(현재 송문영님은 어느 기업의 부사장 직책을 맡고 계신다). “무척 겸손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이세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송지원 씨의 말에는 큰 애정이 묻어난다.

하지만 아버지만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니라고 한다. 어머니 또한 외할머니께서 주위에 항상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자라셨고 ‘내가 가져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볼 줄을 알고 나누면서 사는 게 사람다운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보고 자라셨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는 지원 씨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소 가르쳐주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성실함은, 내 인생의 중요한 지표!

송지원 후원자는 이런 아버지의 성실함이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30년 넘도록 꾸준히 일 하시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번창시키고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

면서, 이제 겨우 입사 4년 차인데 일에 열정을 느끼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이런 확실한 삶의 지침이 있었기에 지원 씨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과 성실함이 송지원 후원자의 긴 인생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홀트에 후원하는 것도 망설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기회가 될 때, 여유 있을 때 후원을 하는 것만 같아서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에도 감사한데, 자꾸 부끄럽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송지원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홀트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긍정의 파워를 실어주는 울타리

지원 씨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중에 비록 온전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어디서든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고 말해주는 곳이 바로 홀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긍정의 파워!’를 실어주는 울타리 같다고 했다.

홀트의 아기들이 비록 몸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과 이별했지만, 더욱 엄청난 사랑으로 보듬어줄 부모님이 꼭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고. 자신이 뜻한 환경이 아닌데도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로 인해 나 자신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절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책임지지 못한 어른들을 대신해 더욱 사랑하는 어른들과 후원자들이 전달한 그 따뜻함을 늘 간직하고 자라주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비행기에 탄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홀트의 아기들을 생각한다는 송지원 후원자님은 정말 소중한 홀트 가족이다.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해주는 후원자님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Holt](#)

글 _ 방은지·후원관리팀



세상을 향해 점프!

미혼모 일터 만들기 'Jump with Baby'

은행앞이 노랗게 날리던 아름다운 감고당길에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했던 홀터 아동복지회의 'Jump with Baby'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미혼모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캥거루스토어' 건립기금 조성 프로젝트인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편견과 외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세상을 향해 높이 점프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눔과 소통이 있어서 더욱 즐겁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지금, 점프해요!



뛰고, 뽐고, 굶고, 나누고

아기 캥거루, 친구 캥거루, 가족 캥거루, 할아버지 캥거루... 종로구 감고당길에는 종일 캥거루 앞치마를 한 사람들의 점프로 북적입니다. 한켠에서 꼬마아이들은 자그마한 손으로 캥거루 코인을 뽑기 위해 줄을 서 있고, 뽑아놓은 코인으로 열심히 스크래치월을 긁어 냅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던 11월의 첫 날, 미혼모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Jump with Baby' 행사의 모습입니다.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MBC의 후원으로 진행된 'Jump with Baby'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며, 내년에 설립될 캥거루스토어의 기금마련 행사이자, 대중들이 미혼모의 현실에 공감하고, 이해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미혼모의 어려움을 뜻하는 허들(사회적 편견, 가족의 외면, 학업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을 뛰어넘음으로써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캥거루처럼 앞치마에 아기 캥거루 인형을 넣고 함께 뛰는 '허들뛰어넘기코너'와 1,000원 이상의 기부로 캥거루코인을 뽑는 '코인뽑기코너', 미혼모의 막막한 현실을 나타낸 그림이 캥거루코인으로 긁어내면 당당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립하고 있는 이미지로 변하는 '스크래치월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나눔과 참여의 즐거움을 드리하고자 모든 코인을 뽑은 분들에게 코인보관케이스와 나눔증서를 드렸습니다. 또한 골드코인을 뽑은 분들에게는 롯데시네마, 이지함 화장품, 뽕구멍치킨, 봄티비, 아이다화장품, 탐앤탐스의 물품협찬으로 푸짐한 선물도 전해졌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꼬마들은 골드코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코인뽑기 코너를 떠나지 않기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걸어요, 미혼모 지원을 위한 나눔 행사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왔다가 참석했다는 한 가족은 "아이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블로그의 후기를 통해 알게 된 한 아이는 뽑기에서 나온 코인을 잠 잘 때까지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코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참 뜻깊은 행사였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 행사를 알게 되어 자신과 같은 미혼모들을 응원하려고 아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미혼모의 의미 있는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겹게 지나온 길을



1 미혼모들이 처한 어려움을 코인으로 끊으며 공감하는 시민들. 2 정성스레 모금함에 기부하는 고사리손. 3 행사에 참여하고 나눔 증서를 받는 외국인 가족, 4 스크래치월글기에 동참하는 선·정혜영 홍보대사. 5 행사가 끝날 무렵 활짝 웃는 미혼모들의 모습으로 변한 벽.

똑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발걸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이 전해져 현장 봉사자들의 마음까지 몽클했습니다. 대중들의 참여가 이어진 스크래치판에는 “힘내요”, “함께 걸어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들을 응원하는 문구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지켜내면서도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던 미혼모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참여와 더불어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 뮤지컬 배우 최정원, 스타강사 김미경, 가수 박시환 씨 등 유명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시환 씨의 팬클럽은 행사 이틀 전, ‘박시환 데뷔 200일’을 맞아 Jump with Baby에 780여 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또한 뜻깊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현실은 오롯이 혼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아이 키우기는 혼자만의 몫이 아닌데도 말이죠.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마련인 미혼모들... 이번 행사를 통해 미혼모와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속 마을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났길 기대해봅니다. 그녀들이 엄마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Jump!할 수 있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HIT

글 _ 김유진·후원개발팀



사회적 편견



학업단절, 심리적 불안



가족의 외면



경제적 어려움



내년에 태어날 캥거루스토어는?

캥거루스토어는 기업들에게 물품을 후원받아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곳에 미혼모가 채용되어 1년간 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미혼모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이고, 그중에서도 28%는 무소득이라고 합니다(한국정책연구원, 2009). 미혼모들은 학력단절과 육아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편견으로 그나마 있던 직장에서도 상당수가 그만두게 됩니다. 캥거루스토어는 이렇게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이 1년간 직업훈련과 더불어 아이와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홀트휠체어농구단 출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3인방 우리나라 휠체어농구의 길을 묻다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마지막 날, 대한민국 휠체어농구팀이 일본과 붙어 61-50 승리를 거두고 15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는 기사가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중 가장 역동적이고 인기 있는 휠체어농구.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홀트휠체어농구팀 소속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자랑스러운 홀트인들을 만나 우리나라 휠체어농구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획득하고 축하를 받는 자리(왼쪽부터 이윤주·조승현·최요한 선수).



홀트휠체어농구단 3인 금메달 획득!

‘씩씩~’ 휠체어가 코트를 가르는 소리에 관객들은 혹시라도 선수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선수들의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장애인스포츠 가운데서도 가장 속도감 있고 스티븐 넘치는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스포츠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기종목답게 장애인아시아경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농구 결승전이 열리던 그 날, 조승현(30) 선수는 팀 선수들과 다짐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거다. 하지만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티는 내지 말자.”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바로 최근 우리가 상대팀인 일본을 세계선수권에서도 이기고 장

애인아시아경기 예선전에서도 이기는 등 연승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쿼터부터 계속 점수를 앞서갔고, 3쿼터에 가서 일본의 추격을 받았지만 결국 4쿼터까지 전력을 다해 한 번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는 무결점 경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금메달을 안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선수들이 모두 ‘눈빛으로만 감격을 나누고 경기에 진 일본팀을 격려하는 신사도를 보였다’는 이윤주(29) 선수의 말을 들으니 실력만큼 마음까지 훈훈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최강자는 이미 70년 전부터 휠체어농구를 시작해온 일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휠체어농구가 30년도 채



1, 2 선수들의 메달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홀트 직원들과 홀트타운 생활자들.

되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도 수년간 노력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일본에 아깝게 1점 차로 패하는 바람에 아시아에 3장이 나오는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해 런던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드디어 일본을 1점차로 따돌리며 세계 6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드디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그동안의 아쉬움을 한 번에 씻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홀트휠체어농구단의 자랑스러운 3인

현재 홀트휠체어농구단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금메달의 승리를 이끈 멋진 국가대표 3인 조승현·이윤주·최요한(28)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승현 선수는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고등학교때 까지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2006년부터 휠체어농구를 시작하게 됐고 현재 홀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합니다. 눈웃음이 애교 있고 탤런트 유아인을 닮았던 소

리도 자주 듣는 가드 이윤주 선수는 낮에는 홀트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죠. 국립재활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처음 휠체어농구를 접한 후 2009년부터 운동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실력을 인정받아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부터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포워드 최요한(28) 선수는 현재 고양시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건 당연하겠죠. 홀트팀은 매주 3회 꾸준히 연습을 하며 전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직업이 있으니 퇴근 후나 개인시간에 연습을 해 전문 훈련만 하는 실업 선수들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트팀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대표를 3명이나 배출한 데에는 무엇보다 선수들이 농구를 사랑하고 있고, 홀트만의 전용구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휠체어농구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5명만 고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원이 좀 더 마련돼 전문선수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농구단에 대한 투자 절실

그동안 실업팀을 만들고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휠체어농구와 선수들의 기량이 꾸준히 발전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자신감과 실력을 확인한 선수들은 다음 올림픽에는 반드시 출전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그 전망도 밝습니다. 내년 10월에 있을 올림픽 예선전 때도 승리하기 위해서 아시아게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부터 코트에 나와 열심히 기량을 연마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에 비해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초라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실업팀은 서울시청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클럽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농구가 장애인 재활체육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프로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 또 홀트의 우수한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 어떤 운동보다 '서로 도와서 해야만' 하는 휠체어농구의 아름다운 정신!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서, 프로농구처럼 휠체어농구 경기를 팬들이 시즌 내내 즐길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글 _ 이창신·홀트일산복지타운

● 사회공헌 ●

㈜아이카이스트, 사회공헌 협약



11월 17일 ㈜아이카이스트(대표:김성진)가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우리회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후원했다.

가수 박시환 감사패전달



11월 12일 가수 박시환 씨가 우리회 '점프우드베 이비' 미혼모자 자립 돕기 행사에 팬클럽 기부를 통해 78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LIG, 사랑의 날들이



LIG그룹(대표:남영우)의 후원으로 10월 14일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300명이 참여하는 'LIG 사랑의 날들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대상, (주)CJLION, (주)롯데제과가 협찬하는 등 따뜻한 손길들이 함께했다.

희망이음, 협약식 및 도서후원 전달식

희망이음(대표:현재익)과 9월 30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만여 건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 후원사업 협약식 및 얼마 출판사의 후원 서적 520부 전달식을 가졌다.



SBS예술단의 미혼모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SBS예술단(단장:김정택)이 지난 9월 30일 미혼모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 모금된 금액 중 500만 원을 후원했다.

박상일 후원자 부부 후원금 전달



정기후원자 박상일 후원자님 부부가 9월 19일 우리회를 방문해서 양육 아동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홀트장학생 서포터즈 Good action팀 후원금 전달

지난 6월 28일 홀트장학생 서포터즈가 미혼모 캠페인 280일의 설레임을 홍보했다. 캠페인 활동으로 모인 후원금도 전달했고, 365베이비케어 장기 대상자를 위한 키트포장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했다.

● 본부 ●

2014 Happy Journey, 국외입양인과 동반자 모국연수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앙입양원 후원으로 올해 23번째를 맞이하는 국외입양인과 동반자를 위한 모국연수캠프가 실시됐다. 미국, 벨기에에서 총 12명의 참가자와 동반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그림세션 및 Art 워크숍, 전통공연 관람, 한국요리교실체험한국을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회원 가입



우리회는 올해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했고, 11월 6월 이은정 해외사업팀장이 회원증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 회원단체들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국제 개발협력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 가을 대바자회 성황리에 마쳐



10월 31일 '의료아동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치러진 가을 대바자회가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의료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6회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연수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해, 캄보디아 사회부 공무원 4명, 홀트드림센터 직원 1명 등 총 6명은 홀트아동복지회 사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을 받고 우리회 시설들을 방문했다.

2014 Happy Together,

국외장애입양인 및 입양가족 초청 모국연수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앙입양원 후원으로

● **홀트일산복지타운** ●

영혼의 소리로 정기공연



11월 1일 예술의 전당(IBK챔버홀)에서 새로 온 손종범 지휘자의 지도와 작곡가 주영훈 씨의 사회로 정기공연을 가졌다. 큰 도움을 준 JW 중외학술복지재단과 여러 후원자, 그리고 관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23회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500시간에서 3,000시간 동안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 약 500여 명의 정기 자원봉사자 11분에게 11월 1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 **홀트학교** ●

홀트학교, 재활승마교실이 열려



홀트학교 운동장에서 중증 장애학생을 비롯한 50여 명의 학생을 위해 매 분기별로 열리던 승마교실이 10월 31일 끝났다. 뉴시헬스 힐링 승마사업단(단장:김명기)이 협력한 이 수업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자신감을 북돋웠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59주년 기념식 개최



창립 59주년을 맞아 10월 6일 본부 및 지방사무소, 단위 기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식 및 예배를 가지고, 우리회의 복지사업을 위해 애쓴 장기근속 직원 40명과 유공직원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위탁모봉사 모녀, 아산상 수상



11월 25일 서울아산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26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27년간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본 홍경신 씨와 딸 장은주 씨가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 **지방사무소** ●

대구사무소, 천연염색체험

10월 25일 홀트를 통해 국내 입양한 16가정이 천연염색 체험으로 머물러 만들기, 부모교육, 퍼포먼스 미술놀이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청사무소, 입양가족 행복캠프 실시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이동상담소 주관으로 9월 26, 27일 대전동구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2014년 대전광역시 입양가족행복캠프를 실시했다.

인천사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주)선광, 화인파트너스, 힐라선에서 울초 지정기탁 후원금 총 500만 원을 받아, 올 한해동안 양육아동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소중하게 사용했다.



로 제4회 국외 장애인양인과 입양가족을 위한 모국연수캠프가 실시됐다. 총 17명의 참가자와 가족들이 참여를 하여 한국요리교실, 붓글씨 활동 등을 통해 모국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4년 제30회 홀트 전국후원회수련회

제30회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가 경기후원회의 주관으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60여 명의 후원회원들과 함께 했다. 식전행사로 옥션을 진행했으며, 서영자 고문과 경기후원회 나명자 회장은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선·정혜영 홍보대사 '2014 파라다이스상' 수상



우리회 선·정혜영 홍보대사가 10월 14일 '2014 파라다이스상' 사회복지부문에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0년 동안 1,000시간이 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우리회 아동 후원 등 수십억 원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제5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성황리에 열려



우리회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여의도 공원에서 국내 사회복지 단체와 주요 기업의 사회 공헌팀 등 총 61개 기관이 동참한 나눔 대축제에 참여해 우리회를 소개하고 나눔 저금통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마음페스티벌 개최

10월 8일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시 장애인 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축하공연, 건강 체험관, 건강 먹거리 등의 체험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생산품 홍보관 등으로 구성, 지역주민이 참가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10월 10일 두류1, 2동의 현정민원실에 북 카페 '웃는 얼굴'을 개소했다.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 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제3회 홀트 행복키움가족걷기대회 실시



2012년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어져온 행복키움 가족걷기대회를 올해 10월 11일도 개최했다. 함께 걷고, 아날로그 게임, 비누꽃 화분 만들기 활동을 하며 걷기대회의 추억을 남겼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청춘어르신 난타공연



10월 30일 운봉열린 마당에서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청춘 어르신들의 난타공연이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2개월간의 연습 끝에 공연을 선보였고, 이날 지역주민 130여 명이 관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사랑 그림대회



이마트 하남점 후원을 받아 10월 15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지구사랑 환경사랑' 주제로 그림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저소득 가정 아동 50명이 참여해서 12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행복잔치'



9월 2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 내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잔치를 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최, 광안 4동 주민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이색적인 축하공연과 민찬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

● 미혼모자시설 ●

고은뜰, 미혼 한부모 가족주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LH공사의 지원받아 16가정에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7가구가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다.

아름뜰, 월 1회 입소자 정기나들이 실시

매월 1회 입소자 정기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선유도 공원으로 가을 소풍과 저녁 외식을, 10월 29일에는 점심 식사와 경화루를 포함한 경복궁 나들이를 다녀왔다.

아침뜰, 사진·UCC 공모전 시상식

'스마일~ 찹찹! 미혼모자 인식개선 사진 UCC 공모전'의 시상식이 10월 31일 아침뜰 후원회 '나무



새' 임원진 및 80명의 미혼모자가족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상식 후에는 퇴소양육모 자조모임이 진행돼 더욱 의미 있는 하루였다.

대구클로버, 입소아동 백일잔치

9월 15일, 10월 29일 달구벌후원회와 함께 입소아동의 백일잔치가 있었다. 입소한 미혼모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격려했으며, '퀵스 베이비 스튜디오'의 재능기부로 입소아동의 백일사진 촬영했다.

대전클로버, 홀커밍데이 실시

개소 7주년을 맞이하여 11월 27일 홀커밍데이가 열렸다. 퇴소 미혼양육모를 초대해 퇴소자와 현 입소자와의 만남을 통해 퇴소자의 성공적인 모습을 롤모델로 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처음느낌 그대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처음느낌 그대로'가 8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자녀들의 사회성 향상과 형제 및 또래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지킴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총 17회기 동안 대구시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대상 '찾아가는 Safe-keeper(안전지킴이)'을 진행했다. 자존감 향상 및 역량 강화로 새롭게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동행'



지난 9, 10월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캠프를 통해 갱년기 심신 증상의 이해, 춤 테라피 등으로 부부 간 소통과 이해 폭을 확장시켰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놀이마당'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회 6층 강당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수료식 및 삼행시 짓기 시간을 가졌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의 멜로디' 캠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음악치료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감정 소통 프로그램 '우리부부(애) 사랑의 멜로디' 캠프를 진행했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동결혼식

10월 15일 오전 11시 디아펠리리 그랜드 홀에서 내빈과 하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지원으로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가정 다섯 쌍을 대상으로 '2014 춘천시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홀트심리상담센터, 협약 기관 간담회

지난 10월 17일 홀트심리상담센터 협약 기관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 소진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 전주영아원 ●

전주영아원, 도지사상 수상



9월 22일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청 공연장에서 본원 박지선 생활지도원이 지역사회 요보호아동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서울대공원 견학

10월 15일에 서울대공원에 다녀왔다.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고,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느끼는 호기심과 환희가 가득한 견학이었다.

중동어린이집, 유아숲 체험



10월 18일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에서는 중

동 어린이집 만 4세반 부모 참여수업이 진행됐다.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은 숲 해설을 들으며 다양한 나무들과 열매들을 살펴봤다.

홀트어린이집, 프로젝트 종결행사



지난 10월 1일 만 3~5세 유아들이 한 달 동안 떡과 쌀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 후 종결 행사로 떡 샌드위치, 식혜 등을 직접 만들어 부모님 대상으로 판매를 했다. 이날 판매 수입금 총 60만 원은 홀트아동 양육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 전국후원회 ●

서울후원회, 서영자 고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영자 고문이 지난 35년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물질적인 후원과 지속적인 봉사로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10월 9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4년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원후원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송편빚기 행사

9월 3일 추석을 앞두고 신규 결혼이민자 50여 명이 전통예절교육 및 송편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추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후원회, 사과 따기 체험행사 가져

11월 12일부터 3일 동안 20명의 후원회원들이 전남 곡성군 겸면에 소재한 이말청춘 사과농원에서 사과 따기 행사에 참가했다.

경북후원회,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지난 10월 25일(토)에는 경북후원회(회장:정영숙) 회원들이 2014년 포항시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하여 포항 시민들에게 본회 사업을 알렸다.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제8회

홀트아동복지회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꿈을 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19세 미만의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으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장래 계획을 분명히 가졌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두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합니다

- 특전 : 상장, 지원금 200만 원, 아름다운 청소년 캠프
- 서류 접수 : 2014년 12월 11일까지(서류 합격자 발표 19일)
- 면접 일자 : 2014년 12월 22일(면접 합격자 발표 26일)
- 시상식 : 2014년 12월 29일
- 캠프 : 2015년 1월 29~30일(1박 2일)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078

*선발 후 시상식, 캠프 등 모두 참석 가능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선발되더라도 대상에서 취소됩니다. 언론 및 방송에 기사화 될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 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 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2014년도 홀트 이웃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5일까지
후원금을 꼭 납부해주셔야
2014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후원자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출력

온라인 회원 가입자가 아닐 경우

www.holt.or.kr 접속 ▶ 회원 가입 후 ▶
후원팀(02-331-7074)으로 온라인 등록 요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 기부금 영수증 출력

*국세청 발급은 2015년 1월 중순부터 이용
문의 1899-0923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력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 영수증 인터넷 출력 확대로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나 우편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02-331-7074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도시는 쉽게 메마르지 않는다

도시라는 이름의 사막

그 건조한 삶에서

당신의 몸 속 수분을

꼭 지켜주고 싶어서

포카리스웨트는

7가지 전해질로 촉촉하게!

물보다 오래오래!



내 몸에 가까운 물



물만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 된 듯 느끼지만
체액이 묽어져서 지속적으로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카리스웨트를 마셔야
혈액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분이 보충되어 탈수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